

주간

2015. 6. 29. ~ 7. 5.

# 전남농업정보

40

VOL

## 주간 기상전망

###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단감·포도 재배 동향 및 축산물·엽근채소 가격 동향

### 전남 농특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매실·감자 가격 및 수급 동향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강진 코끼리마늘 '화제'...일반 마늘보다 10배 커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중소식품기업 3곳 중 한 곳, 할랄시장 진출 희망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비파잎 활용 식초·음료 개발...  
특허출원

### 정책동향

전남도, 메르스 불황·농특산물 특별 판촉 나서



전라남도  
Jeolla 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6~15mm)보다 많음

###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단감, 올해 재배면적 2% 감소 전망
- 시설포도 성목면적 증가, 노지는 감소

###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 축 산 물 : 한육우, 돼지

- 한육우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6,000~17,500원/kg 전망
- 돼 지 :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나 수요 감소로 7월 지육 가격은 탕박 기준 4,900~5,200원/kg 전망

#### ▶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 추 : 배추 가격은 노지봄배추 및 준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7,000~8,000원/10kg 전망
- 무 : 무 가격은 봄무 출하량 감소와 대체재 가격 상승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11,500~14,500원/18kg 전망

## ☼ 전남 농특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전라남도)

### ▶ 전남 양파·마늘·매실·감자 가격 및 수급 동향

#### · 가격동향(6.23.현재, 상품기준)

- 마늘 : 4,040원/kg(전년 2,860원 대비 41%↑, 평년 대비 18%↑)
- 양파 : 1,137원/kg(전년 350원 대비 125%↑, 평년 대비 32%↑)
- 매실 : 2,623원/kg(전년 1,381원 대비 90%↑, 평년 대비 13%↓)
- 감자 : 1,196원/kg(전년 716원 대비 67%↑, 평년 대비 15%↑)

#### · 매실 수급현황

- 재배면적은 전국의 69%인 3,937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26,234원/10kg(전년 13,817원 대비 89.9%↑, 평년 30,095원 대비 12.8%↓)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남도일보)

- ▶ 강진 코끼리마늘 '화제'...일반 마늘보다 10배 커
- ▶ 고흥군, 2기작 벼 '첫 이삭'
- ▶ 광양시, 경쟁력 있는 10대 농산물 집중 육성한다
- ▶ 곡성군,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박차'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 중소식품기업 3곳 중 한 곳, 할랄시장 진출 희망
- ▶ 농협, 미국에 한국농산물 진입장벽 완화 요청
- ▶ 농식품부, 파프리카 수출 현장 간담회 개최
- ▶ 유자차수출협의회 정기총회 "중국 내륙시장 공략을"

###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전남농기원, 비파잎 활용 식초·음료 개발...특허출원
- ▶ 농촌진흥청, 아위느타리버섯 새 품종 '비산2호' 개발
- ▶ 잡곡의 안정 생산은 조명나방 제때 방제부터!
- ▶ 과수 '화상병' 도내 유입 완벽 차단한다
- ▶ 병해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개발 박차

###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전남도, 메르스 불황...농특산품 특별 판촉 나서
- ▶ 농번기 점심식사, 마을공동급식으로 해결
- ▶ "2015. 7. 1.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제한"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세대별 재산·소득 따라 차등지원
- ▶ "내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산 대두재고, 수출경쟁 강화로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강우로 인한 미국 중서부의 작황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무려 4% 상승
  - 옥수수 선물가격은 최근 5주래 상승하여 마감
  - 대두 선물가격은 파종 지연과 달러화 강세, 잠정 생산량 감소, 대두유, 대두박 수요 감소 등으로 전일대비 감소

## ☼ 고소득 농업사례(광남일보, 남도일보)

- ▶ 전남 유기농 선도농가를 찾아서-담양 장군농장 안성희 대표
- ▶ 전남 청년 농업인-장성 늘푸름식품 문인석 대표
- ▶ '케이팍 흑염소'로 억대 소득 귀농인 화제

##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변경전) : 3. 2. ~ 6. 15. → 7. 10.일까지
- 밭직불금 중 밭동계작물 신청완료(5.22.)
- 쌀·조건불리직불금, 밭하계작물에 대해 신청 기간 연장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중 실제 경작자
- 지급단가(ha당)
- 쌀직불금 100만원, 밭고정 25만원, 밭농업 40만원, 밭농업이모작 50만원

###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수도권 공동마케팅 추진

- 기 간 : 7. 2 ~ 7. 15(14일간)
- 장 소 : 농협 고양하나로클럽(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최/주관 : 전라남도/농협 전남지역본부
- 참여업체 : 10개 농협('15. 전국 10대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공동판매전, 홍보·시식행사,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등

▶ 2015년 남도 우리 술 품평회 개최

- 일시/장소 : 7.10.(금) 11:00~17:00/도청 수리채
- 위탁기관 :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 선발부문 : 총 8개 부문, 20점 선발
- 평가항목 : 국내산 원료 사용 여부 등 서류심사, 외부전문가의 맛·향·색상 등 관능심사

▶ 2016년도 농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선발

- 신청기간 : 6. 22. ~ 7. 17.(4주간)
- 신청자격 : 농업기계운전, 수리요원 근무 희망자(대상자) 및 필요 업체
  - 대상자 : 현역 대상자(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업 체 :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 등 병무청 지정 업체

##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6. 29.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29)	전주 (6/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9,000	142,000	196,467	↓ 2.1	↓ 29.3
	고구마(밤)	10kg	37,400	36,800	30,480	32,700	34,940	↑ 14.4	↑ 7.0
	감자(수미)	20kg	28,600	29,400	47,160	19,650	22,577	↑ 45.5	↑ 26.7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700	680	936	518	541	↑ 35.1	↑ 29.4
	양배추	10kg	8,000	7,800	11,500	4,275	5,265	↑ 87.1	↑ 51.9
	오이(다다키계통)	15kg	26,333	23,333	19,400	23,750	26,767	↑ 10.9	↓ 1.6
	애호박	8kg	14,200	12,200	9,200	9,150	11,827	↑ 55.2	↑ 20.1
	토마토	10kg	16,800	16,200	23,280	13,900	15,767	↑ 20.9	↑ 6.6
	무(월동)	1kg	700	680	-	468	647	↑ 49.6	↑ 8.2
	당근	20kg	30,800	30,400	30,000	33,000	32,510	↓ 6.7	↓ 5.3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60,000	780,667	↑ 24.2	↑ 5.0
	풋고추	10kg	38,000	38,200	49,840	35,650	31,820	↑ 6.6	↑ 19.4
	마늘(난지)	10kg	48,000	40,400	35,400	29,900	34,765	↑ 60.5	↑ 38.1
	양파	1kg	1,010	920	714	475	709	↑ 112.6	↑ 42.5
	대파	1kg	2,370	2,500	2,440	1,115	1,464	↑ 112.6	↑ 61.9
	파프리카	5kg	15,200	14,800	28,840	17,950	21,133	↓ 15.3	↓ 28.1
	방울토마토	5kg	12,000	13,400	17,920	10,400	12,637	↑ 15.4	↓ 5.0
	수박	1개	13,600	13,800	15,840	12,550	13,883	↑ 8.4	↓ 2.0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7,800	67,800	67,600	92,500	81,700	↓ 26.7	↓ 17.0
	배(신고)	15kg	39,600	39,600	41,200	64,450	59,083	↓ 38.6	↓ 33.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29)	전주 (6/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4,000	558,000	↓ 0.4	↓ 4.7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2,000	357,800	↓ 5.0	↑ 17.4
	새송이버섯	2kg	8,600	8,400	8,520	8,200	7,855	↑ 4.9	↑ 9.5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886	6,501	6,617	6,468	6,195	↑ 6.5	↑ 11.2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88	2,317	2,320	2,222	2,057	↓ 6.0	↑ 1.5
	닭고기	1kg	5,800	5,528	5,216	5,950	5,834	↓ 2.5	↓ 0.6
	계란(특란)	10개	1,953	1,936	1,994	2,015	1,816	↓ 3.1	↑ 7.5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7	2,302	-	↑ 10.7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6. 29.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828 천원	4,821 천원	4,278 천원	↑ 0.1	↑ 12.9
	거세	6,241 "	6,196 "	5,600 "	↑ 0.7	↑ 11.4
송아지 (6~7월)	암	2,555 "	2,483 "	1,835 "	↑ 2.9	↑ 39.2
	수	3,104 "	2,997 "	2,630 "	↑ 3.6	↑ 18.0
육우(600kg)		3,463 "	3,409 "	2,621 "	↑ 1.6	↑ 32.1
젖소수송아지(7일령)		198 "	198 "	16 "	-	↑ 1137.5
돼지(110kg)		424 "	467 "	455 "	↓ 9.2	↓ 6.8
육계(원/kg)		1,551 원	1,375 원	1,411 원	↑ 12.8	↑ 9.9
계란(원/특란10개)		1,220 원	1,253 원	1,395 원	↓ 2.6	↓ 12.5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4,000 원	-	↓ 41.7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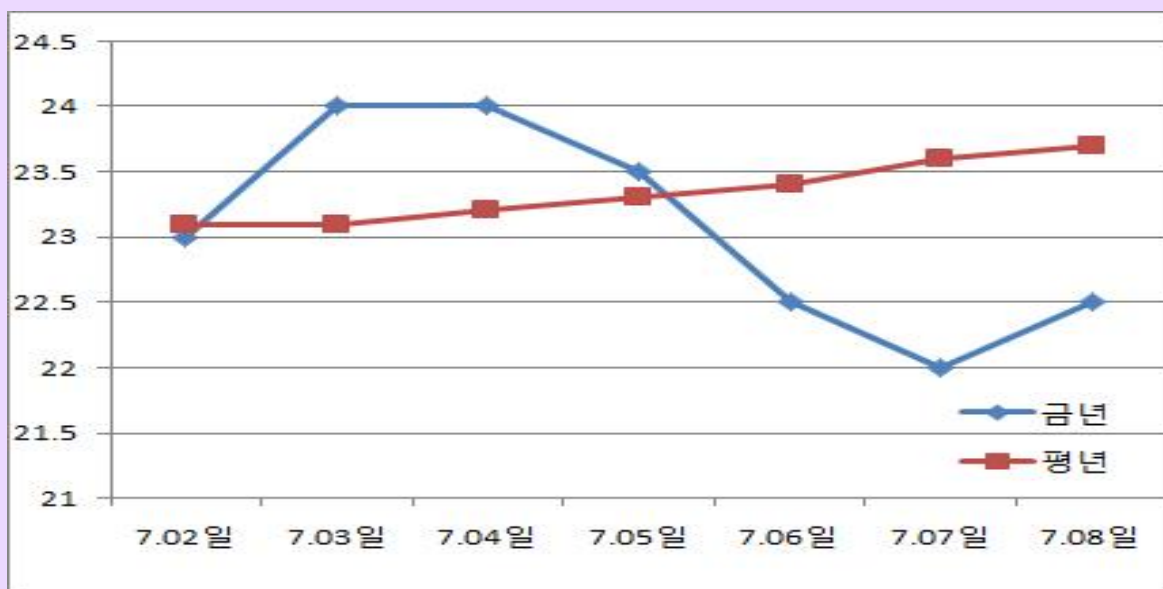


#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날 씨 (강수량 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23.1	23.3	-0.3	25.3	26.7	-1.5	20.9	20.9	0.0	
7. 02.(목)	23	23.1	-0.1	26	26.3	-0.3	20	20.7	0.7	맑음
7. 03.(금)	24	23.1	0.9	27	26.4	0.6	21	20.7	-0.3	맑음
7. 04.(토)	24	23.2	0.8	27	26.5	0.5	21	20.8	-0.2	맑음
7. 05.(일)	23.5	23.3	0.2	26	26.9	-0.9	21	20.8	0.2	맑음
7. 06.(월)	22.5	23.4	-0.9	24	26.9	-2.9	21	20.9	0.1	비 (5mm)
7. 07.(화)	22	23.6	-1.6	23	27.1	-4.1	21	21	0	비 (10mm)
7. 08.(수)	22.5	23.7	-1.2	24	27.1	-3.1	21	21.3	-0.3	맑음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 2. 농산물 재배 동향

### 단감·포도 재배 동향

#### □ 단감, 올해 재배면적 2% 감소 전망

- 단감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폐원 및 작목전환을 한 농가가 많아 2000년 2만 4천 ha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올해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2,209ha로 추정된다. 성목면적과 유목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2%,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 재배면적은 최대 주산지인 경남지역이 전년보다 2% 감소하였으며 경북과 전남 지역이 각각 2%, 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품종별로는 부유가 전년보다 2% 줄었으며, 차랑과 서촌이 각각 2%, 5% 감소하였다. 반면, 부유가 상서·태추 등으로 고집갱신되면서 기타 품종은 전년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시설포도 성목면적 증가, 노지는 감소

- 올해 시설포도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거봉이 전년보다 각각 2%, 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노지포도 성목면적은 1% 감소한 가운데,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MBA가 전년보다 각각 1%, 2% 줄었지만, 거봉은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가격이 낮은 캠벨얼리 대신 거봉 계통의 자옥과 청포도인 샤인마스캇의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축산물** : 한육우, 돼지

○ ( 한육우 )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6,000~17,500원/kg 전망

○ ( 돼 지 )

-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나 수요 감소로 7월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4,900~5,200원/kg 전망

**엽근채소** : 배추, 무

○ ( 배 추 )

- 배추 가격은 노지봄배추 및 준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7,000~8,000원/10kg 전망

○ ( 무 )

- 무 가격은 봄무 출하량 감소와 대체재 가격 상승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11,500~14,500원/18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4. 전남 농특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

### 전남 양파·마늘·매실·감자 가격 및 수급 동향

#### ○ 가격동향(6.23.현재, 상품기준)

- 마늘 : 4,040원/kg(전년 2,860원 대비 41% ↑, 평년 대비 18% ↑)
- 양파 : 1,137원/kg(전년 350원 대비 125% ↑, 평년 대비 32% ↑)
- 매실 : 2,623원/kg(전년 1,381원 대비 90% ↑, 평년 대비 13% ↓)
- 감자 : 1,196원/kg(전년 716원 대비 67% ↑, 평년 대비 15% ↑)
- 수매농협 : 무안, 서남부채소 등 7개 농협
- 결정가격(20kg) : 상품(9~12천원), 중품(7~11천원), 하품(3~5천원)

#### ○ 매실 수급현황

- 재배면적 : 3,937ha(전년 3,844ha 대비 2.4% 증) - 전국의 5,700ha의 69%
  - 시군별 : 광양 1,342, 순천 1,302, 곡성 606, 구례 215, 기타 472
- 출하동향 : 3,150ha(전체 면적 3,937ha의 80%)
- 도매시장 가격(15.6.23.현재, 10kg/상품기준)
  - 매실 : 26,234원(전년 13,817원 대비 89.9% ↑, 평년 30,095원 대비 12.8% ↓)

\* 출처 : 전라남도

## 5. 전남 시·군 농정동향

### ■ 강진 코끼리마늘 `화제`...일반 마늘보다 10배 커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재배 성공 첫 수확 -

- 전남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 마늘보다 10배나 큰 대형 마늘인 '코끼리마늘'을 수확해 화제가 되고 있다.
- 코끼리마늘은 일단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반 마늘이 한 알에 5g 정도인 반면 코끼리마늘은 평균 50g으로 10배정도 크고 무겁다.
- 대왕마늘, 웅녀마늘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진 코끼리마늘은 이국적인 모습과는 달리 우리나라 토종이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 마늘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재배되던 것을 수십년 전에 미국서 유전자원으로 수집해 가져가 현지화에 성공해 오리건주에서는 대왕마늘 축제를 할 정도로 일반 재배된 반면 국내 재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다행히 몇년 전 유전자원 반환에 의해 다시 국내로 들여와 조금씩 입소문으로 재배되고 있다.
-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전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품종으로 소량 재배되다가 코끼리마늘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하여 시험재배해 왔으며 지난 15일 첫 수확을 해냈다.
- 최영준 원예연구팀장은 "충북에서 연구되고 있는 코끼리마늘과 강진산을 비교한 결과 외견상 큰 차이가 없어 예전부터 토종으로 전해 내려온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재배가 쉽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품종이지만 아직 먹는 방법과 활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끼리마늘은 특쏘는 맛은 떨어지는 반면 자양강장효과가 높은 스킨프린 함량이 일반 마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출처 : 남도일보

## ■ 고흥군, 2기작 벼 `첫 이삭'

- "내달 20일께 수확...농지활용 극대화 소득증대" -

- 전남 고흥에서 재배중인 2기작 벼의 이삭이 나오는 첫 출수(出穗)가 시작돼 다음 달이면 햅쌀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고흥군은 동강면 죽암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2기작 벼의 이삭이 꽤기 시작해 다음 달 20일께 올해 첫 벼 수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 최근 첫 출수한 2기작 벼는 지난 3월 20일 이양직후 닷새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저온현상으로 생육이 부진했지만, 이후 높은 기온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정상 생육이 이뤄졌다.
- 군은 일조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다음 달 20일께 벼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확한 벼를 '금세기 쌀' 상표로 출하할 방침이다.
- 죽암농장은 다음 달 첫 수확하면 같은 노지에 조생종 조평벼를 한 번 더 심어 오는 11월초 한번 더 수확할 계획이다.
- 2기작 벼는 포트(상자)모판과 육묘를 이용한 것으로, 포트육묘는 볍씨를 평탄한 일반모판이 아닌 포트형태의 모판에 뿌려 전용이앙기로 모를 심는 방식이다.
- 모 포기가 포트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양할 때 뿌리 손상이 없고 활착이 빠른 특징이 있어 2기작 벼 재배에 이용된다.
- 김종욱 죽암농장 대표는 "조생종 벼는 수확시기가 빨라 태풍에 비교적 안전하고 추석 이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햅쌀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죽암농장은 내년에 고흥지역 우수 농업경영체에 매뉴얼을 확대 보급해 농지활용 극대화로 소득증대를 원하는 농가에 벼 2기작 재배 방법을 전파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와 물 관리·시비관리 등 영농지도를 철저히 하고, 특히 태풍 등 재해가 발생할 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재해대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 광양시, 경쟁력 있는 10대 농산물 집중 육성한다

- T/F팀 활동보고회..."4년간 매년 100억원 지원" -

- 전남 광양시가 향후 4년간 농업 부문에 매년 100억원을 투자해 10대 대표작목을 본격 육성한다.
-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 농업인교육관에서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전략품목 육성 T/F팀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 대표 농작물 육성 T/F팀은 지역 대표작목 특화육성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 이날 보고회는 총괄보고와 작목반별 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임영주 부시장의 특강과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 특히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실제로 영농활동에 접목해 농가소득 2배 이상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농사 지도와 지원에 시동을 거는 자리가 됐다.
- 기술센터 T/F팀은 앞으로 매실, 시설과채류, 단감, 시설양상추, 풋은감, 시설수박, 파프리카, 시설잎들깨, 배, 산채류 등 경쟁력 있는 10개 품목 작목반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임영주 부시장은 "국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분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모든 문제를 현

장에서 찾고 현지에서 해결한다는 자세로 생산자들과 호흡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시 관계자는 "T/F팀 운영과 더불어 향후 4년 동안 농업부문에 매년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 산업을 육성시켜 농가 평균소득 5천만원 실현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 곡성군,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박차'

- 오메가3 딸기·멜론 재배 농가소득 향상 -

- 전남 곡성군이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농업의 중심축을 기능성 작목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고자 기능성농산물 생산 사업을 추진했다.
- 첫 단계로 18농가 4ha에 '오메가-3 딸기생산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총 6회에 걸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00g당 20~40mg의 오메가-3성분이 확인됐으며, 일반딸기의 121%인 5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 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메가-3 농산물 생산농가 교육을 가졌다.
- 이번 교육은 올해 기능성농산물 생산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해 추진상황과 올해 추진계획 설명, 기능성 농산물 재배관리에 따른 교육에 이어 농가들과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올해 오메가-3 농산물생산 사업은 딸기 3.3ha와 멜론 6.7ha 등 총 10ha 규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총 12억여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 이번 사업의 주 내용은 오메가-3분말(밀겨름)과 액비(웃겨름) 시용에 의한 기능성농산물 생산과 가격 차별화를 위한 유통개선 등이며 품질균일화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해 실천할 방침이다.
- 한편, 오메가-3는 사람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에 필수적이며 특히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동맥경화나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질환은 물론 뇌와 눈 신경의 정상적인 발달을 돕는 등의 생물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필수지방산이다.

\* 출처 : 남도일보

##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 중소식품기업 3곳 중 한 곳, 할랄시장 진출 희망

-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300개 중소식품기업 대상 할랄시장 인식 및 진출의향 조사 발표 -

- 중소식품기업 3곳 중 한 곳이 할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내 300개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할랄시장에 대한 인식 및 진출의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중소식품기업의 61.0%가 할랄시장에 대해 알고 있으며, 특히 할랄시장에 대해 알고 있는 업체들의 48.1%가 진출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인 이상~50인 미만 중소식품기업에서 할랄시장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할랄시장 진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식품기업 3곳 중 한 곳 꼴인 31.3%가 이미 할랄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식품업체에서는 '진출 계획 없음' 비율이 85.5%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에, 20~50인 미만 및 50인 이상 중소규모 식품업체에서는 진출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44%·33.4%로 나와 할랄시장 진출 희망 평균치인 31.3%를 웃돌았다.
- 할랄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로는 '글로벌시장 진출 및 다각화(45.2%)'가 가장 많았고, '내수시장 한계 극복(24.7%)', '할랄시장의 높은 성장성(1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할랄시장 진출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할랄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46.7%)'이라 답했고, 이어 '까다로운 인증 절차 및 비용(37.7%)',

‘할랄 공정 및 설비구축 비용 부족(29.3%)’, ‘이슬람 문화 이해 부족(19.7%)’, ‘무슬림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19.7%)’으로 조사됐다.

- 또한 중소기업기업의 원활한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중복응답 가능) 1순위로는 ‘할랄 공정 및 설비구축 자금지원(46.7%)’가 꼽혔고, ‘할랄인증 컨설팅 지원단 운영(41.7%)’을 답한 업체들도 많았다.
-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기업이 할랄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나, 관련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및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중소기업체들의 할랄시장 진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 농협, 미국에 한국농산물 진입장벽 완화 요청

-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대표는 18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한국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를 요청했다.
- 이 대표는 이날 주한 미대사관이 주최한 농업분야 간담회에 참석해 올 10월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의 하위규정이 한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한국 수출농가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이 한국 농식품 수출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이 대표는 아울러 미국이 지난 3월 한국산 배 수출 현지검역 횟수를 늘린 데 대한 감사의 말도 전했다.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검역관이 수출 산지를 찾아 현지 검역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연 1회 검역하던 것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해 한국배의 대미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 마크 리퍼트 대사는 한국 수출농가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농민신문

## ■ 농식품부, 파프리카 수출 현장 간담회 개최

- 이동필 장관, 고양시 한국농원 방문·엔저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 약속 -
- 정부가 엔저로 파프리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유망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및 수출보험 확대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파프리카 생산영농조합법인 '한국농원'을 방문해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엔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이 자리에는 이동필 장관 외에 강혜영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 김상경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최병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유병남 한국농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 유병남 대표는 “한국농원은 연간 300여톤의 파프리카를 생산해 이 중 70% 이상을 일본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엔저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대일 수출에 애를 먹고 있다”며 “홍콩·싱가포르 등 신시장 개척에도 나서봤지만 가격 단가가 맞지 않고, 인지도도 낮아 수출시장 다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이에 이동필 장관은 “정부도 파프리카·화훼 등 엔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품목에 대해 유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열난방시설 및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한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출시장 다변화 측면에서는 정부가 중국의 고급 파프리카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다.

- 이동필 장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중국 당국과 파프리카 수출 검역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파프리카의 높은 안전성과 품질을 앞세워 현지 부유층을 겨냥한 파프리카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 또한 중소과를 선호하는 일본시장과 달리, 중국은 대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향후 수출물량 공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이동필 장관은 “어려운 때일수록 품질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수출유망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보험 지원 확대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지원책을 통해 엔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 유자차수출협의회 정기총회 "중국 내륙시장 공략을"

- 유자차수출협의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중국 내륙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 유자차수출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14개의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유자차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김종남 한성푸드 대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투표를 통해 류창수 (주)대관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류창수 신임 회장은 “회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협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어 협의회는 올해 유자차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유자차의 신규 수출 판로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다수의 회원사들은 우리 유자차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그동안 중국 대도시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현지 내륙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에 따르면 중국 내륙시장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입식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우리 유자차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은 아직까지 더딘 상황이다. 때문에 유자차의 홍보 및 판촉 등 공동마케팅 사업을 중국 내륙지역으로 집중하자는 것이 중론이다.

- 이에 따라 협의회는 우리 유자차의 중국 내륙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2월 개소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청주 지사와 연계한 수출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중국 내륙지역에서 유자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기후 및 식문화에 맞는 유자차 시음법을 개발해 홍보하는 한편, 현지 주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산 유자차 제품과 차별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출용 유자차 품질인증마크를 활용, 우리 유자차의 안전성 및 고품질을 현지 소비자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 류창수 신임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유자차의 중국 내륙시장 개척을 위한 세부적인 홍보방안을 수립 및 추진해 유자차 수출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7.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 전남농기원, 비파잎 활용 식초·음료 개발...특허출원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아열대 과수 '비파 잎'을 활용해 식초 및 음료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기술원은 2012년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을 받아 전남의 비교 우위자원인 아열대 상록과수 비파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해왔다. 지난해 6차 산업을 연계한 비파잎 식초, 음료를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 비파잎 식초는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긴산과 글루탐산((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조미료성분)의 함량이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예로부터 '집 마당에 비파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집안에 의사가 두명이다'라는 속담이 전해질 만큼 비파의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파열매는 기침, 천식, 가래, 기관지염 등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갈증 해소효능이 탁월하다.
- 비파 잎을 달여 차로 마시면 신경증을 완화하고 위장의 열을 낮추고 기억력 개선, 면역력 향상, 비만, 당뇨, 고혈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비파는 시설재배에서 4월~5월말까지, 노지에서는 6월~7월 상순까지 생산 출하된다. 수확된 과일은 1~5℃에 저장할 경우 20~40일간 보관할 수 있지만 맛과 과일 외관의 품질이 점점 떨어진다. 따라서 수확 직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먹는 것이 좋다.

- 이소미 기술원 과수연구소 연구사는 "비파잎 식초와 식초 음료가 시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유통까지 연결 될 수 있도록 도내 비파 재배농가와 지역 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기능성 함량이 높은 비파잎 품종의 지속적인 발굴과 제품화를 통해 비파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기술원은 2002년 국내 최초로 비파품종인 미황을 육성했고, 2009년에는 만생종인 진왕 품종을 개발했다. 비파잎 전용 생산을 위한 잎 수확시기와 방법 개발, 유망한 유전자원 계통도 선발 등 다양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농촌진흥청, 아위느타리버섯 새 품종 '비산2호' 개발

- 맛과 식감 뛰어나...통상실시 통해 농가 보급 중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맛과 식감이 우수한 아위느타리버섯의 새 품종 '비산2호'를 육성했다.
- 아위느타리버섯은 항종양과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며, 위와 신장 장애, 기침을 멎게 하고 염증을 없애 산부인과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산2호'는 '아위1호(비산1호)'에 이어 개발한 품종으로 버섯 모양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 아삭아삭한 식감이 뛰어나며, 독특한 향이 없어 버섯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다. 특히, 볶음이나 전, 구이 등 버섯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요리에 알맞다.



- 또, 까다로운 아위느타리버섯 재배 방법 대신 새송이 재배 방법을 적용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모양으로 육성했다.
- 농촌진흥청은 ‘비산2호’의 품종보호 출원 후 통상실시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 통상실시를 받은 농가는 자동화시설을 이용해 대량 생산해 농가 자체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 중이다.
- 앞으로 아위느타리버섯에 대한 다양한 기능성 품종을 육성하면 경쟁력을 키워 로열티(사용료)를 받는 품목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버섯과 신평균 박사는 “앞으로 아위느타리버섯의 새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송이 농가는 물론, 버섯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잡곡의 안정 생산은 조명나방 제때 방제부터!

- 페로몬트랩으로 예찰 후 적용 약제 뿌려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조, 기장, 수수 등 잡곡에 많은 피해를 주는 조명나방의 방제 요령을 소개했다.
- 조명나방은 애벌레가 잡곡의 줄기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속을 갉아먹는 해충으로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힌다.
-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올해 조명나방의 발생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예찰과 방제에 주의가 요구된다.

-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주요 잡곡 재배지인 경남 밀양과 강원 원주를 중심으로 페로몬트랩에 유인된 어른벌레 수를 조사한 결과, 평년(2012~2014)보다 밀양 1.2배, 원주 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발생량이 증가한 원인은 평년보다 겨울철 온도가 높아 겨울을 난 애벌레의 생존율이 높았고, 특히 원주는 지난해 강수량이 매우 적어 조명나방 성장 단계에 앞맞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 또, 올해 여름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조명나방의 발생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조명나방 방제를 위해서는 먼저 페로몬트랩을 이용해 해충 발생을 미리 살펴 어른벌레 수가 많아지거나 잡곡이 새끼 치는 시기 이후에 등록된 약제를 뿌려야 한다.
- 또, 성페로몬 트랩(로켓트랩, 델타트랩)을 재배지 30a 당 3곳에 설치해놓고 어른벌레 유인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때를 관찰해 그날로부터 7일에서 14일경에 뿌린다.
- 페로몬트랩이 없을 경우, 잡곡의 파종 적기인 6월 상·중순을 기준으로 한 달 후인 7월 상·중순 또는 식물체 크기가 20cm~30cm일 때 약제를 뿌려준다.
- 방제제로는 델타메트린 유제나 에토펜프록스 유제 등을 사용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강항원 과장은 “조명나방 방제에 효과적인 유기농업자재 선발과 약제 등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해충 방제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며, “개발된 기술은 농가에 신속히 보급함으로써 작물의 재배 안정성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과수 ‘화상병’ 도내 유입 완벽 차단한다

- 도내 사과 배과수원 전수조사, 발병 징후 없어 -

- 과수 세균성 병인 ‘화상병’이 국내 과수원에 발생하면서 도내 사과·배 재배농가와 관련기관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최근 중부지방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발생과 유입 차단을 위한 과수원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 이와 관련하여 도농업기술원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도내 사과와 배 과수원 4,300ha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상병 발생 과수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지역 배 과수원에서 화상병 의심 증상 4건이 접수 되었으나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검은별무늬병인 것으로 확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도농업기술원 황갑춘 박사는 “앞으로 우리도가 화상병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세균병 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화상병’은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과수세균병의 일종으로 감염되면 과일나무의 잎은 흑갈색 병반으로 시들고, 줄기가 윗부분부터 마르기 시작해 아래쪽으로 퍼져 새순이나 가지가 검게 변해 말라 죽는다.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병으로 지정돼 있는 이 병은 곤충, 또는 비에 씻긴 병원균에 의해 다른 나무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 병해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개발 박차

- 충북농업기술원, 도유 특허 이용 유기농업자재 2~3년내 상용화 밝혀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중)은 도유 특허 미생물 균주를 활용한 수박 병해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개발 등록을 위한 실용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농가 시험을 통해 방제 효과를 확인한 이 미생물(자일로곤 가노데르모프소라)은 도 농업기술원이 2013년에 특허 등록한 균주로 흰가루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박 병원균에도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 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결과물을 유기농업자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성이 없어야 하는 등 생물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미생물 이용 유기농업자재도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독성 확인을 위한 예비시험을 추진한 결과 급성경구독성과 어독성시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농도별, 보조제 조합별 방제 효과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이면 우수한 조합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재 사용중인 수박 흰가루병 유기농업자재는 황을 포함한 자재와 미생물 배양액과 추출물을 포함한 자재 등이 유통되고 있는데, 황을 포함한 자재는 저항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우스 철골이나 비닐 등을 부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대체할 다양한 유기농업자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충북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강효중 박사는 “지금까지 국내에 병해 관리를 위하여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는 약 300여 종류가 된다.”면서, “2~3년 내에 우리도 고유의 특허 균주를 활용한 유기농업자재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충북농업기술원

## 8. 정책동향

### ◆ 전남도, 메르스 불황...농특산품 특별 판촉 나서

- ‘남도장터’ 특별기획전 최대 50% 할인...보성 농산물 사주기 운동도 -
- 전라남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활용, 전남산 우수 농특산품을 시중 가격보다 8~25% 저렴한 가격(일부 품목제외)으로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 ‘우리몸엔 우리농산물’이란 특별기획전으로 7월 6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전남산 우수 농특산품을 산지 직배송으로 집에서 쉽고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 특히 ‘남도장터’를 찾는 소비자와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매일 1~2개, 매주 8~16개 정도의 특가상품을 선정해 15~50%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 전라남도는 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성군 농가를 위해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사주기 운동 전개, 보성 감자 공동 구매(22~24일)를 추진한다.
- 또한 서울상인연합회를 통해 보성회천감자 4천 400(5kg) 박스 공동 구매를 추진키로 했다.
- 지역농협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장터(로컬푸드), 상상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고, 도 산하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사주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메르스로 인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농촌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의 땅 전남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친환경 농특산품 특별행사 판촉에 소비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라남도 우수 및 친환경농수산물(250업체 3천여 품목)은 인터넷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 농번기 점심식사, 마을공동급식으로 해결

- 이 지사, 23일 무안 봉산3리 방문해 훈훈한 마을공동체 강화 당부 -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3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시행하는 무안 몽탄면 봉산3리(기룡동마을) 마을회관을 방문,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공동급식을 통한 훈훈한 마을공동체 강화를 당부했다.
- 이 자리에서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부녀자들이 논밭에서 똑같이 일 하고도 점심 때 집에 돌아가 밥을 차리는 등 힘든 노동에 집안 일까지 하느라 잠시 쉴 틈도 없었는데 마을공동급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기룡동마을 백창의(53세, 여) 이장은 “매일 시장을 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포함해 25명에게 공동급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무엇보다 위생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가끔 멀리 떨어진 농장까지 차로 배달할 때도 있지만 힘든 줄 모르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바쁜 농번기철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공동급

식이 마을공동체의 훈훈한 미풍양속이 되살아나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도내 전체 농업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일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농촌마을에 노인들의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공동급식사업이 마을 공동체 및 주민 간 유대 강화에 도움이 돼 노인 고독사 방지에도 일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전라남도의 마을공동급식은 바쁜 농번기철에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 순천, 나주, 고흥, 해남 등 9개 시군 253개 마을에서 15일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 올해는 여수시 등 17개 시군 506개 마을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봄과 가을 농번기 25일간 인건비와 부식비로 마을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전라남도는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급식 보조, 설거지 및 급식시설 주변 청소 등 일손이 필요한 희망마을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매년 확대해 2018년부터는 1천265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 ◆ “2015.7.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제한”

-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7.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으며,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면세유는 '86.3월부터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

① 정부는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경유는 내연기관용,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

\* '10.1.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11.7.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한 경우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

\* '15.7.1일부터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 제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 '15.3.13)

②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③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이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면세유 올바른 사용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면세유가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관련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세대별 재산·소득 따라 차등지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가 세대별 재산과 소득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정책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 이번에 제정된 안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은 보험료의 28%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률지원과 정액지원의 기준이 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 정액지원과 지원제외 기준이 되는 ‘지원제외 기준점수’ 등을 정한 것이다.
-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건강보험료 부과점수와 보험료 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해서 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이에 따르면 전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의 95%는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하고, 상위 4%(현행 9만~12만4000원)는 정액(8만9760원)으로 지원하며, 최상위 1%(현행 12만4000원~62만3000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0원)되도록 했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률지원과 정액지원의 기준이 되는 점수는 1801점이다. 즉,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가 1800점 이하일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고, 1801~2500점은 정액지원이 된다. 또한 2501점 이상은 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2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으며, 고시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 간 갈등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내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1ha로 변경해야 한다.
  -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금년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를 등록하거나 경지면적 변경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 이번 제도개선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이다.
  -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농식품부는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나 농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와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장 홍보시 함께 알려나갈 예정이다.

\*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13년에 2014-2016년까지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변경사항은 201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초에 향후 3개년간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9. 해외 농업정보

### ◆ 미국산 대두재고, 수출경쟁 강화로 증가

USDA는 미국의 대두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대두 수출시장의 경쟁강화로 유통년도 2015/16년 미국산 대두공급이 43%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USDA는 유통년도 2015/16년 공급상황 첫 번째 추정에서 미국산 대두 기말재고를 500백만 부셸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2014/15년 350백만 부셸보다 상향된 수준이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2015/16년 대두재고 전망물량 443백만 부셸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MaxYield Cooperative의 애널리스트 Karl Setzer는 “500백만 부셸은 약간 충격적인 수준이다.” 라고 언급하며, “그러한 수치를 전망해본 지 수 년이 지났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큰 희망도 갖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오전 내내 높은가격으로 거래되었던 시카고 대두 선물가격은 USDA의 이러한 보고서 발표로 하방압력을 받았으며, 기준가격인 7월물 가격도 약 10% 하락하였다. 또한, USDA는 2015/16년 대두생산을 38.50억 부셸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수율감소로 2014/15년 39.69억 부셸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산 대두수출 물량은 18억 부셸에서 17.75억 부셸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되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브라질의 대두수출은 45.65백만 부셸에서 49.75백만 부셸로, 아르헨티나도 8백만 부셸에서 8.5백만 부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2015/16년 국내산 옥수수 기말재고는 17.46억 부셸로 2014/15년 18.51억 부셸보다 하

향전망되었으며, 2015/16년 밀 기말재고는 예상보다 높은 793백만 부셸로 2014/15년 709백만 부셸보다 상향전망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산 밀 생산은 20.87억 부셸로 전망된다고 한다. 미국산 겨울밀 생산량도 14.72억 부셸로 전망되며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단지 2백만 부셸 높은수준이다. 이로 인해 시카고 옥수수 및 밀 선물가격은 대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USDA 보고서 발표로 하방압력을 받았다. 한편, 2015/16년 세계대두 기말재고는 85.54백만 톤에서 96.22백만 톤으로 증가, 옥수수는 191.94백만 톤으로 감소, 밀은 203.32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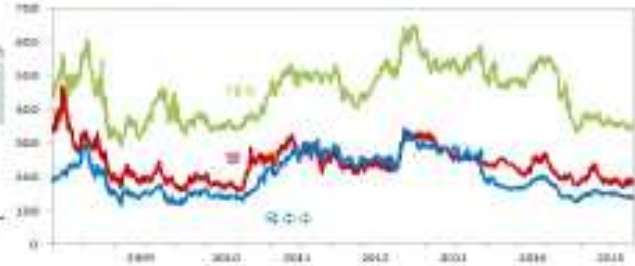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6. 24.(시카고 선물거래소)

## 강우로 인한 미국 중서부 작황 우려에 밀 가격 치솟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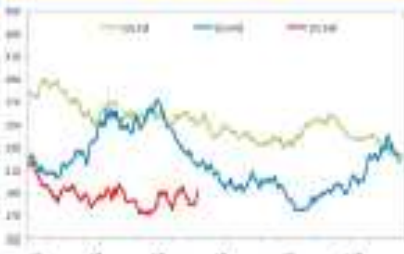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6.23)	전일대비	전일평균 (15.5)	2014 평균
밀	191.58	▲4.0%	180	216
옥수수	144.64	▲2.1%	141	164
대두	362.8	▼0.2%	352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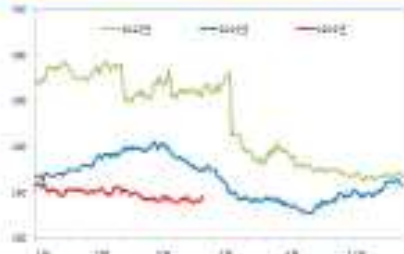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측의 거래되는 밀(적색선종립: 557g), 옥수수(대두: 7월물) 장선가격임.  
옥수수, 대두: 7월물 장선가격임.

###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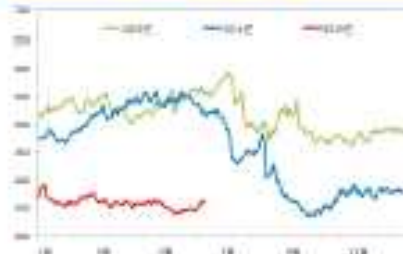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technical 분석과 강우로 인한 미국 중서부의 작황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무려 4% 상승함. 또한 날씨문제도 작황연달림의 불안이 배출지 않을 것으로 전망. 미국농무부(USDA)는 올해 밀 수확이 19% 진행되었으며, 이는 5년 평균 31%에 못미치는 수준이라 발표.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최근 5주라 상승하여 마감한 미국농무부(USDA)는 지난 월요일 주간 곡물 동급 보고서 미국 중부 옥수수 71%에 우수등급을 매겼으며, 이는 지난해 73% 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임. 이는 달러화 강세와 중서부의 생산 호조로 인한 것으로 전망됨.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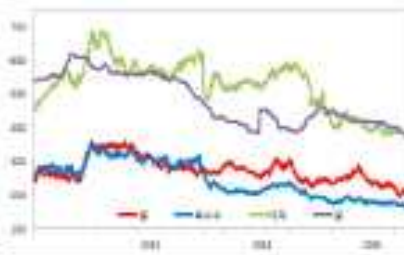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파종 지연과 달러화 강세, 잠정 생산량 감소, 대두유, 대두박 수요 감소 등으로 전일대비 감소함. 미국농무부(USDA)는 현재 대두 90%가 파종되었지만, 5년평균 95%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며, 작황량 65%에만 우수등급으로 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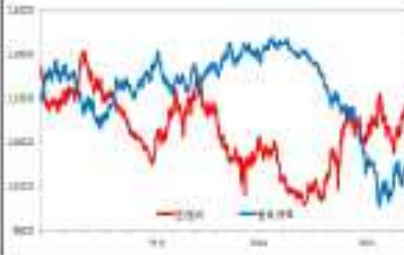
### 관련동향

- 미국 중서부 강우로 인한 수출보험가격 상승.
- 국제유가는 이번 하반기 불확실성 증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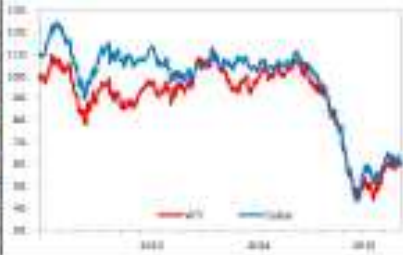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208	▲2.5%		환율	원/달러	1099.9	▼0.5%
	옥수수	173	▲2.6%		달러/유로	1,1344	▲0.2%	
	대두	400	▲1.5%		WTI	61.01	▲0.1%	
밀	378	▲1.3%	국제유가	Dubai	60.11	▼1.8%		

주) 1) 밀(US SRW Gelf), 옥수수(US JYC Gelf), 대두(US Gelf), 콩(Thailand 100% Grande B), WTI(7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 '15.6.23(수출가격), '15.6.23(환율), '15.6.23(국제유가)의 정보 출처(국제곡물시장, 한국농림,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10. 고소득 농업사례

### ■ 전남 유기농 선도농가를 찾아서 담양 장군농장 안성희 대표

- '담양 1호' 유기농 인증·농기센터 등서 2년 넘게 교육 -
- '소비자 우선' 기능성식품 안전성 강화위해 유기농 시작 -
- "무농약 제품과 가격 비슷...소비자 현명한 선택 절실" -
- 일반 원예작물보다는 노동력이 적게 들지만 수도작에 비해서는 훨씬 강도가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블루베리. 이러한 블루베리에 더욱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유기농법을 도입해 지역 농가를 선도하는 이가 있다.
- 그 주인공은 담양 수북면 대방리 일원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성희(55) 장군농장 대표.
- 안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존 블루베리 농장을 인수해 유기농법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 나주가 고향인 안 대표는 2008년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했다. 2007년 식재한 농장을 인수해 곧바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 3년 넘는 친환경재배와 무농약재배를 거쳐 지난 2011년 담양군에서 가장 먼저 블루베리 부문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 무농약 재배는 합성노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행재배의 3분의 1 범위에서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유기농 재배는 합성농약은 물론 화학비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 부족한 영양분 공급은 수목 주변에 풀을 자라게 하는 초생재배를 통해 일정 시기가 되면 김매기를 통해 친환경적 영양분을 공급한다.
- 유기농 인증도 한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매년 토양과 작물 검사에서 통과해야 유지할 수 있어, 유기농 인증 제품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 안 대표의 이러한 유기농법 실행은 생각만으로는 실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에서 1년, 농업인 마이스터대학에서 1년간 블루베리 재배법과 유기농법의 정보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을 거쳤다.
- 블루베리는 세계적으로 북반구를 중심으로 150~200종이 분포돼 있으며, 로부시(lowbush) 블루베리, 하이부시(highbush) 블루베리, 래비트아이(rabbiteye) 블루베리 등 세 품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블루베리에는 푸른색으로 상징되는 안토시아닌 색소, 새콤달콤한 당분, 점성이 있는 펙틴, 은은한 향기 등이 있다. 또 100g당 식이 섬유가 4.5g이 들어 있으며 칼슘, 철, 망간 등이 많이 함유돼 있다.
- 블루베리를 활용한 관련 제품으로는 캔디, 껌, 잼, 드링크류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눈의 기능성에 착안한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블루베리의 재배 및 관련 산업은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블루베리는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며 염기성과 중성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번식은 뿌리나누기·휘묻이·종자로 한다. 열매는 거의 둥글고 1개가 1~1.5g이며 짙은 하늘색, 붉은빛을 띤 갈색, 검은색이고 겉에 흰가루가 묻어 있다.



- 달고 신맛이 약간 있기 때문에 낱것으로 먹기도 하고 잼·주스·통조림 등을 만든다.
- 안 대표는 현재 4000m<sup>2</sup>의 시설재배를 통해 유기농법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여기에 5600m<sup>2</sup> 규모의 노지에 무농약 재배도 하고 있다. 중국에는 이도 유기농재배로 가기 위한 것이지만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 거래되고 있는 블루베리 가격에 있어 유기농제품과 무농약제품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블루베리의 유기농 재배가 첫 시작됐을 당시에는 유기농과 무농약에 차이가 많아 손이 많이 가는 유기농 재배에 이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올해는 1kg 당 2만원에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유기농과 무농약 제품의 가격이 동일하다.
- 이런 상황에서도 안 대표가 유기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만의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유기농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고 한다.
- 기능성식품이 소득작물로 유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일반 식품보다도 건강을 위해 먹는 기능성식품인 블루베리를 농약이나 화학약품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유기농법을 도입했다고 한다.
- 블루베리는 일반 원예작물에 비해서는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지만 수도작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 2년생 수목을 식재해서 2년이 지난 후 3년째가 돼야 수확이 가능하다. 이후 40~50년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확량은 3~4년

째는 1그루 당 2kg 정도 수확할 수 있고 7~8년이 지난 후에는 최대 4kg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한다.

- 겨울철 휴면기에는 가지치기 등을 해주고 2월이 되면 밑거름을, 4월 개화기를 거쳐 6월 초부터 3주간 수확한다. 수확 후에는 하계 전정과 웃거름 등을 주고 병해충 방제작업을 한다.
- 안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베리 농장의 경우 수확철 안 대표 부부와 4명의 직원으로 모든 일을 소화하고 있다.
- 안 대표는 1년간 평균 유기농 재배로 1.5t, 무농약 재배로 2t 등 총 3.5t을 생산해 7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수확한 블루베리는 농협에서 공동선발작업 후 판매한다. 60% 정도는 농협을 거쳐 판매하고 나머지 40%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 타 작목에 비해 일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 귀농·귀촌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실제 안 대표에게 블루베리 농법을 배워간 귀농자들이 상당수 된다고 한다.
-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배수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배수 불량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물빠짐이 잘 돼야 한다. 또 물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관수시설도 필수적이다.
- 블루베리는 당도가 높은 과수이기 때문에 조류의 좋은 먹이감이 되곤 한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다보니 더더욱 심해 블루베리 농장에 방조망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 안 대표는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 생산과 판매에 그치지 않고 농장체험 등을 더해 6차산업화에도 도전하고 있다.

- 6차산업은 농산물 생산의 1차산업과 제조·가공의 2차산업, 여기에 유통·체험·관광 등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분야의 경제활동이다.
- 6차산업을 통해 농업 소득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 안 대표는 매년 6월부터 학생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블루베리 재배와 수확과정, 묘목 육성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블루베리 판매에만 치중하지 않고 체험을 통한 소득 창출과 소비층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안 대표는 "유기농 재배는 단순한 농업이 아닌 소비자를 생각하는 과정이다"며 "시장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과 농업에서 미래를 열어갈 길은 오직 유기농에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에게는 유기농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확립돼 있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며 하고 있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광남일보

## ■ 전남 청년 농업인—장성 늘푸름식품 문인석 대표

- "자식에게 최고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 만들어" -

-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효능을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제품을 접해 본 사람은 꾸준히 주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 핵가족화로 1인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 가속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에게는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필요하지 흐름에 영합하지 않는 독심은 소용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가업을 이어온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자리한 '늘푸름 식품'(대표 문인석·38)이다.
- 문 대표는 6년전인 2009년 서울에서 과일 농수산물 경매사로 일했다.
- 하지만 문 대표는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 문 대표는 “처음에는 낮에는 경매사일을 하고 밤에는 떡 만드는 법을 배워 자격증을 따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꾸려가려고 했지만 동생들과 떡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됐다”며 “동생에게 떡방앗간을 물려주고 10년 전 아버님이 뽕잎선식을 판매하셨던 것을 되살려 뽕잎 미숫가루를 만들어 팔았지만, 뽕잎 미숫가루 한 품목으로는 성공이 힘들겠다는 생각에 다양한 제품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 또 “공장 옆 하우스에서 생물인 딸기를 키우는데 이를 저장할 계획으로 현재 공장 옆에 급랭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반적인 선식과 달리 늘푸름 식품이 만든 선식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 부모의 마음으로 장성지역의 로컬푸드와 자신이 직접 재배한 곡식을 재료로 삼는 것은 물론 자동화 기계를 도입한 지금도 수작업으로 온도와 물량을 조절해가며 고소한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또 간편하게 모든 영양을 채길 수 있는 선식은 바쁜 직장인은 물론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과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에게도 식사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늘푸름 선식은 총 5가지다. 모링가 선식(3만6천원), 렌틸콩 선식(2만3천원), 옛 선식(1만5천원), 검정 선식(2만5천원), 푸름 선식(2만3천원) 등이다.
- 특히 늘푸름 식품은 현재 오픈마켓과 온라인 소셜 커머스를 통한 개인주문은 물론 골프장과 건강기능식품매장 22곳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6월중 장성하나로마트에 납품될 계획이다.
- 또 SNS(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고객의 소통활성화와 선식 체험장 운영으로 선식 생산과정 공유와 다양한 레시피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장성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문 대표의 사업을 돕고 있다.
- 장성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선식시장이 영세하고 대기업의 충분한 자본력과 홍보로 인해 기존 온라인 판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직판행사로 고객확보와 체험까지 추진 중이지만 선식만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딸기, 백향, 과일, 약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병행해 부가적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 문 대표는 "선식을 만들며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고객이 오히려 감사를 표현해줄 때가 있다"고 말한다.
- 늘푸름 선식은 해마다 명절 때면 가족들에게 건강에 좋은 선식을 줄 수 있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곤 하는 효자로 자리잡고 있다.

- 이렇게 감사메일을 받으면 문 대표는 "자식에게는 최고를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은 것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 늘푸름 식품은 최고가 되는 것보다 좋은 선식 만드는 것을 우선한다. 최고로 좋은 선식을 만들면 다른 가치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에서다.
- 문 대표는 젊은 귀농귀촌인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저도 부모님이 하던 것을 물려받아 일을 배우게 됐지만 젊은 혈기만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정말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조사를 하고 시골을 오가며 2~3년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귀농귀촌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장성쪽으로 오게 된다면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다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남도일보

## ■ ‘케이팝 흑염소’로 역대 소득 귀농인 화제

- 곡성 오산 흑염소 농장 조동근 씨, 운동장청결 관리로 성공신화 -

- 안개 자욱한 이른 아침 산골마을 흑염소 축사에 케이팝(K-POP)이 울려 퍼진다. 새까만 흑염소 새끼들이 누워있는 어미염소 배 위에 올라서 음악에 맞춰 장난질을 친다. 송아지만한 솜 염소도 경쾌한 리듬을 따라 산책하듯 축사 안에서 빠르게 움직인다. 곡성 오산 흑염소 농장의 아침 풍경이다.
- 서울에서 50여 년의 도시생활을 접고 지난 2010년 61세의 나이에 곡성으로 귀농, 오산 흑염소 농장을 일궈 흑염소 450마리를 키우

고 있는 조동근(66) 씨. 조 씨의 일과는 아침 7시 케이팝과 함께 흑염소들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된다. 저녁에 준 사료는 남아있는지, 설사는 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다.

- 젓병에 분유를 타면 20여 마리의 새끼염소가 순식간에 몰려든다. 어미염소가 새끼를 3마리씩 낳은 경우가 많아 젓이 부족하기 때문에 빗어지는 풍경이다. 흑염소 밥통에 건초를 채워주면 어미 흑염소들이 한 줄로 늘어서 경쟁하듯 먹는다. 흑염소들의 식사가 끝난 후에야 조 씨도 아침을 먹는다.
- 조 씨는 지난해 150마리의 새끼 염소를 분양하고 100여 마리의 큰 염소를 판매해 1억여 원의 소득을 올렸다. 귀농 첫 해 2층의 현대식 축사와 비닐하우스로 800여㎡의 축사를 짓고 전남도의 녹색축산기금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흑염소 85마리를 구입해 키우기 시작했고 귀농 5년만에 450마리로 늘었다.
- 어려운 고비도 있었다. 흑염소를 사육한지 6개월여가 지난 2011년 봄, 구입해온 흑염소들이 새끼를 낳거나 낳은 후 죽어갔다. 30여마리의 흑염소를 땅에 묻고서야 ‘흑염소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마침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개설된 ‘농업 마이스터대학 흑염소 학과’를 통해 운동부족과 비만, 임신중독, 유방염 등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이후 축사 옆에 운동장을 만들고 축사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품질 좋은 건초를 먹이고, 팝송도 들려줬으며, 올해부터는 케이팝으로 바꿨더니 흑염소들의 활동이 왕성해졌다. 조 씨는 “우리 흑염소에겐 케이팝이 최고”라며 “흑염소들이 ‘소녀시대’ 노래를 줄 줄 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그 결과 일반 농가는 질병 등으로 새끼가 죽는 비율이 20~30% 수준이지만 조 씨 농장에선 5~6배 낮은 5% 미만이다. 또한 성장 속도가 빨라 판매할 정도의 체중에 도달하기까지 채 1년도 걸리지 않는다. 다른 농가들보다 2개월 정도 빠르다. 여기에 어미염소 30% 정도는 새끼를 3마리씩이나 낳는다.
- 판로 걱정도 없다. 다른 농가에서 조 씨에게 새끼를 분양받기 위해 1년 전에 예약을 할 정도로, 다 자란 흑염소는 도축장에서 직접 도축해 소비자 단체에 직거래로 납품한다. 일반 농가에 비해 20%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 이런 조 씨의 '오산흑염소 농장'은 흑염소 농장으로는 드물게 HACCP 인증, 친환경축산 인증,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받는 등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농장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부산, 울산, 수도권 등서 500여 명이 견학했다.
- 조 씨는 “대도시에서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흑염소 축사 옆에 조그만 교육장을 만들어 흑염소 귀농 도우미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주위 흑염소 농가, 귀농인들과 함께 흑염소를 친환경적으로 사육해 공동 판매, 육가공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전남은 따뜻한 기후, 풍부한 풀 사료 등으로 흑염소 사육의 최적지로, 도시민의 흑염소 사육 귀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흑염소는 방목이나 농산부산물을 이용해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변경전) : 3. 2. ~ 6. 15. → 7. 10.일까지
  - 밭직불금 중 밭동계작물 신청완료(5.22.)
  - 쌀·조건불리직불금, 밭하계작물에 대해 신청 기간 연장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실제 경작자
  - ※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 신청농지가 1,000㎡미만인 자는 제외
- 지급단가(ha당)
  - 쌀직불금 100만원, 밭고정 25만원, 밭농업 40만원, 밭농업이모작 50만원
  - ※ 밭고정(모든 밭작물), 밭농업(밭재배 26개 품목), 밭농업이모작(논재배식량·사료작물)

###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수도권 공동마케팅 추진

- 기 간 : 7. 2 ~ 7. 15(14일간)
- 장 소 : 농협 고양하나로클럽(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최/주관 : 전라남도 / 농협 전남지역본부
- 참여업체 : 10개 농협('15. 전국 10대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공동판매전, 홍보·시식행사,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등

## ◆ 2015년 남도 우리 술 품평회 개최

- 일시/장소 : 7. 10.(금) 11:00 ~ 17:00 / 도청 수리채
- 위탁기관 :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 선발부문 : 총 8개 부문, 20점 선발
  - 생막걸리 5, 살균막걸리 3, 약주·청주 2, 과실주 2, 증류식소주 2, 일반 증류주 2, 리큐르 2, 기타주류 2
- 평가항목 : 국내산 원료 사용 여부 등 서류심사, 외부전문가의 맛·향·색상 등 관능심사

## ◆ 2016년도 농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선발

- 신청기간 : 6. 22. ~ 7. 17.(4주간)
- 신청자격 : 농업기계운전, 수리요원 근무 희망자(대상자) 및 필요 업체
  - 대상자 : 현역 대상자(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업 체 :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 등 병무청 지정 업체

주간

# 전남농업정보 40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